

## 2024년 4월 26일 설교자 회의

본문 : 누가복음 24장 13-35절

제목 :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대지 : 1. 소망을 잃은 제자들

2. 참 소망이신 예수님

### 1

여자들이 빈무덤을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증언한 그날에, 열한제자에 속하지 않은 두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출발한 그들은 모든 된 일에 대해 대화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벼운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기대했던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 모든 소망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며칠사이에 일어난 일들은 평상시와 매우 다른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따르던 예수님은 잡히셨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날 무덤에 다녀온 여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 빈 무덤과 천사들이 전하여준 소식을 들었지만, 열한 제자 중 베드로만 무덤으로 달려갔고 나머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은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어쩌면 헛소문이라고 까지 여겨졌을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제자는 실망감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 생계의 문제등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나 아마도 그들의 고향일 엠마오로 돌아가며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 2

그렇게 그들이 심각하게 대화하며 엠마오로 가는길에 여행자 한 사람이 그들과 가까이와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면 알아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가리어져있었고, 바로 옆에서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눈이 가리워진 이유가 그들이 슬픔에 빠져있어서인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갖고 가리신것인지, 사탄의 계략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가리워진 눈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떡을 떼어주신 후에 밝아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인간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대화에 대해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멈추어 슬픈기색을 띠고 예수님의 대해 소개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으로 기대했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란 애굽의 종되었을 때 압제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과 같이 해방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실것이고, 그 속량을 그리스도를 통해 실행하신다는 것이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던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삼일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눈이 가리어져있어,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야기를 하고 부활에 대한 소식을 언급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축사후 예수님을 알아보게되고, 새 소망을 받습니다. 새 소망은 정치적인 문제로 부터의 속량함이 아닌, 영혼의 구원임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마음은 뜨거움으로 가득 찹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나요? 나의 상황에 맞추고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우리를 뜨겁게하는 진짜 소망을 회복해야합니다.

**한문장 : 잘못된 소망을 내려놓고 진짜 소망을 회복합시다.**

**참고 : pntcn 누가복음, 강대훈 누가복음**

본문 : 레위기 10장 1-7절

제목 : 원하시는 방법대로

대지 : 1. 순종하지 못한 아론의 아들들  
2. 순종하는 예배자

### 1

레위기 10장의 시작은 앞선 8장과 9장에서의 기쁜 순간이 한순간에 뒤집어 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들어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제사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시고 8장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임명을 받습니다. 9장에서는 제사장 아론이 집행하는 첫 제사가 드러지고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축복하자 여호와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그들은 제사장 임명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로 인해 감격이 절정에 올랐을 것입니다. 드려진 제사의 제물들에 하나님의 불이 나와 모두 불태워 버리는 모습은 놀라우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경외함을 느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9장에서 영광의 불로 제사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은 10장에서 심판의 불을 보내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제사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다른 방법을 취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향로 안에 다른 불을 넣었을 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일 수도, 술이나 우상숭배의 방법을 따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규정한 방법을 어기므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 2

예배는 시대에 따라 형식이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구약시대 드러진 예배의 모습과 신약시대의 모습,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같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형식, 모습과는 반대로 시대가 변해도 변해서는 안될 것도 있습니다. 바로 예배의 주인,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자세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느샌가 교만이 자리 잡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만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들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했습니다.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되는 순간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형태는 다르지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나의 모든 생각 들을 내려놓는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문장 :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예배자가 됩시다.

참고: 베이커 성경주석, 엑스포지멘터리, 박철현 레위기

본문 : 레위기 16장 1-10절

제목 :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방법

대지 : 1. 부정에서 정결로

2. 사망에서 생명으로

### 1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레위기 16장 본문은 10장과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장과 16장 사이에 위치한 11-15장은 모든 사람이 음식, 죽음, 성, 질병 등을 통해 부정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정하다는 것이 반드시 도덕적으로 허물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또한 그 부정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 반드시 제사이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이 부정한 상태는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또 부정은 생각보다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부정한 상태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부정해진 상태에서 성소를 찾은 사람들은 성소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런 죄와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날입니다. 지성소로 나아가는 대제사장도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려면 대제사장의 의복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화려함이 아닌 수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맡고 백성들에게 존경과 권위를 인정받는 위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도 종이자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속죄일의 정점은 아사셀 염소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죄와 부정함을 아사셀 염소가 대신 지고 광야로 내보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염소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죄들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실 것을 보여줍니다.

### 2

그러나 이러한 속죄일의 진정한 성취는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후에야 성취됩니다. 구약의 속죄일처럼 매해 반복해서 속죄해야 할 필요 없이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일 제물이 되심으로 예수님은 모든 부정과 죄를 끊어 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구원에 이르는 방법조차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순종해야 가능해집니다. 10장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고 심판받았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방법 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한문장 : 완전한 속죄는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그리스도의 보혈로 성취됩니다.

참고 : 박철현 레위기, NICOT레위기

본문 : 레위기 24장 10-16절

제목 : 거룩한 땅에서 행해진 죄악

대지 : 1. 제 3계명을 어긴 죄

2. 거룩한 땅, 거룩한 백성

### 1

오늘 본문은 성경에 처음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건입니다. 단 지파 슬로밋과 애굽인 사이에서 태어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과 다투던 중, 해서는 안될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십계명중 제 3계명인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하신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오늘 이 죄를 지은 자를 하나님은 직접 판결하십니다. 그에게 내려진 선고는 사형입니다. 과하다고 느끼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슬로밋의 아들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끌려갔고 그의 모독하는 말을 들은 회중은 그의 머리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들은 사람들 역시 부정한 상태가 된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기에 제사에서 제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것처럼 죄를 범한 슬로밋의 아들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고 사형을 집행합니다.

### 2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에서 발생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은 이스라엘과 애굽의 혼혈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땅에 거류하고 있다면, 본토민이든 거류민이든 그 법이 동일 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곳에서 처음 등장한 말씀은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고(출 12:19, 49), 레위기 앞부분에서도 말씀하셨으며(레16:29, 17:15, 18:26) 민수기 말씀에서도 언급됩니다. 그러므로 애굽인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영역안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죄를 범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일들이 적용되어야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영밖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도록 행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공동체로 인식되어야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과 별반 다르지 않아’,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네’라는 평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쓰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를 통해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문장 :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공동체.

참고 : 생명의 삶, NITOC레위기